

낙지 사라진 식탁에 수입 주꾸미 판친다

잡히는 양이 줄면서 가격이 치솟고 있는 국산 낙지 대신, 수입산 주꾸미의 매출이 늘고 있다.

9월 수산업체와 유통업체에 따르면 지난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1만4000t 안팎이던 국산 낙지의 연간 생산량은 지난해 3분의 1 이하인 4000t으로 급감했으며 올해는 이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국산 낙지 생산량이 줄어든 것은 연안 갯벌환경 오염과 고수온, 가뭄 등 해양환경 변화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낙지의 경우 다른 어류에 비해 산란량이 100여개 수준으로 크게 적은 데다 이 중에서도 70~80개만 생존하는 까다로운 번식 습성, 주 먹이인 철계가 환경오염과 남획 등으로 줄어든 것도 개체수 감소의 원인으로 꼽힌다.

국산 낙지는 원래 가을이 제철이지만 국내

갯벌 오염·고수온 등 영향 낙지 생산 급감
2000년대 중반 1만4000t→지나해 4000t
식감 비슷 태국산 주꾸미 매출 해마다 증가

최대 농수산물 도매시장인 가락시장과 노랑진 수산시장에서 최근 자취를 감췄고, 대표적인 산지인 목포와 무안 등지에서도 물량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비록 소량이지만 거래가 이뤄지던 국산 낙지는 지난 8월 이후 가락시장과 노랑진 수산시장에서 거래 자체가 거의 끊긴 상태다. 그나마 잡히는 낙지는 산지에서 대부분 소비되고 있으며 시중 식당 등에서 팔리는 물량의 상당수도 중국산이라고 업계 전문가들은 전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낙지 어획량을 늘리기 위해 지난 6~7월 사상 처음으로 낙지에 대해 금어기를 설정하기도 했다. 중산층과 서민들이 장을 볼 때 주로 이용하는 대형마트에서도 국산 낙지 구경하기가 어려워진 지 오래다.

국산 낙지가 사라진 자리는 중국산 낙지와 태국산 주꾸미가 대체하고 있다. 특히 식감이 낙지와 비슷하면서 저렴한 태국산 주꾸미가 인기가 있다.

국산 낙지 소매가가 100g당 3300~3500원선

인 데 비해 중국산 낙지는 1400원, 태국산 주꾸미는 1450원선으로 반값도 안 되는 수준이다.

특히 국산과 맛 차이가 상대적으로 큰 중국산 낙지는 인기가 낮은 반면 태국산 주꾸미는 소비자의 거부감이 작고 조림, 찜 등의 요리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 선호도가 높다고 이마트는 설명했다. 지난 2012년만 해도 이마트의 낙지 매출은 32억원, 주꾸미는 25억원으로 낙지가 더 높았으나 지난해에는 낙지 21억원, 주꾸미 55억원으로 역전됐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1~9월 이마트의 낙지 매출은 21억원, 주꾸미는 41억원으로 주꾸미 매출이 낙지를 2배 가까이 상회하고 있다. 국산의 경우 주꾸미도 낙지와 마찬가지로 어획량이 감소했지만 국산과 식감이 비슷한 태국산 주꾸미가 들어오면서 낙지의 빈자리를 빠르게 메우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주간 증시 포커스

2050선 박스권 흐름 예상 불구 3분기 어닝시즌 실적 개선 기대 반도체·철강·은행권주 관심

9월말 주요이슈로 제시했던 미국대선토론에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우세를 보이고 예상하지 못했던 OPEC 산유국이 감산합의를 이끌어내며 글로벌증시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지만 글로벌증시와 국내증시 모두 좁은 박스권에서 제한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국내증시는 주춤했던 한미약품이 제넥스에 대한 대규모 공급계약과 베링거인겔하임의 대규모 계약취소 공시가 연이어 나타나며 제약 바이오업종을 중심으로 큰 혼란을 주었다. 주 후반에는 해피펀드 엘리엇 계열의 투자회사가 삼성전자 이사회에 '주주지치 증진계획 제안'을 보내면서 삼성전자의 주주 전환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며 삼성그룹주가 강세를 보였다. 최근 국내시장은 제약바이오업종의 약세와 IT 반도체업종의 강세처럼 업종별 중복될 차별화가 심화되고 있고 투자자별 수급도 투자주체별 상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외국인은 적극적인 매매수에서 중립으로 전환되었고 개인은 적극적인 매매세를 보이는데 기관들은 지난주 4영입입동안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모두 적극적인 매매도를 보이며 지수상승을 제한했다.

이번주에는 삼성전자가 지난주 7일 잠정실적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3분기 어닝시즌이 시작된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시노트7 리콜비용에도 영업이익 7조8천억을 기록하며 시장 기대치를 충족시켰다. 하지만 시장 전체적으로 1분기와 2분기의 어닝프리라이즈로 3분기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져 있어 실적호전에 따른 시장상승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최근 실적 전망치가 상향되고 있는 업종은 반도체 은행 건설 철강 등이고 하향 조정되고 있는 업종은 디스플레이 에너지 자동차업종 등이다. 두번째 이슈로는 9~13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리는 세계에너지회의에서 9월 OPEC회담에서 결정된 산유량 감산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점을 도출하고 러시아 등 비회원국의 동참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가 관심이다. 이번회의에서 합의점을 찾아낸다면 50달러를 고점으로 한계를 보이고 있는 유가의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고 원자재가 상승으로 신용증시를 중심으로 추가 상승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10~15일 실시하는 한미연합해상훈련에 따른 북한의 반응이다. 과거 북한은 한미간 연합훈련과 주요 기념일을 전후해 미사일발사 및 핵실험 등 기습도발을 강행하였고 한미연합해상훈련이 예정되어 있는 기간 중에 10일은 북한 노동당 창건일이다. 하지만 경험적으로 대북 리스크는 남북간 전면적인 대치국면으로 악화되지 않는다 면 증시영향은 제한적이었으며 단기적 발생시 방산관련주에는 단기적 매수대응이 유효했고 사드배치 및 중국의 반발가능성으로 중국소비관련주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번주에도 코스피지수는 2050선을 중심으로 좁은 박스권흐름이 예상되며 코스닥시장은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개선되지 않으면 당분간 지루한 약세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어닝시즌이 시작되면서 실적개선이 기대되는 반도체 및 은행업종과 삼성전자 지분구조 문제가 부각되면서 대형그룹의 지주회사에 관심이 좋아보인다.

고객만족 맞춤 서비스

'CS 3.0' 결의대회

농협광주본부

농협광주본부(본부장 이흥목)는 지난 7일 지역본부 대강당에서 농심(農心)을 담은 고객만족(CS) 체계인 '더 헤아리는 서비스, CS 3.0' 결의대회를 했다.

이흥목 본부장과 농협임직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펼쳐진 이날 결의대회에서 기존의 CS개념을 넘어 고객만족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농협 CS 3.0을 소개했다.

'농협 CS 3.0'은 구매시점 위주의 고객을 대와 다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의 표준화를 넘어서, 고객만족의 대상을 잠재 고객까지 포괄하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개인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고객만족(CS) 개념이다.

특히 CS 3.0은 지난 7월 농협이 선포한 '농업인이 행복한 국민의 농협'비전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모든 접점에서 가슴을 열고 농업인과 고객에게 세심한 서비스로 감동을 주는데 목표를 두고 있으며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실천을 위해 CS 전산화도 추진한다.

이흥목본부장은 "가슴에 진정성을 담고 응대했을 때 그 서비스가 고객을 감동시킬 수 있다"면서 "농협이 농업인과 고객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가슴에 담아 표현하는 감동을 주는 CS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은 상호금융 50주년을 2019년까지 국내 금융기관 최고 수준의 고객만족 기관으로 발돋움할 계획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서광주농협, 상호금융예수금 1조 달성

광주 14개 농협 중 세번째

서광주농협(조합장 문병우·사진)이 최근 상호금융예수금 1조원을 달성했다.

지난 1972년 지역농협 간 합병으로 설립된 서광주농협은 2016년 6월말 기준으로 조합원 1716명 준조합원 11만4190명으로, 지난해 말 당기순이익 31억8300만원을 달성했다.

서광주농협의 상호금융예수금 1조원 돌파는 광주 14개 농협 중 남광주농협, 광주농협에 이어 세 번째다.

예수금 1조원 달성 농협은 서광주농협이 전국에서 41번째이며, 광주·전남지역에서는 남광주농협, 순천농협, 광주농협에 이어 네 번째로서 명실공히 규모와 내실을 견비한 경영이 우수한 농협이다.



또 최근 하나로유통 사의 이사로 선임된 문병우조합장은 "예수금 1조원 달성은 금융기관간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196명의 모든 임직원이 투병경영의 실현이라는 운영 지표에 따라 혼신의 노력을 다해 달성한 성과이다"면서 "농업인이 행복한 국민의 농협으로서 역할을 다해 지역사회와 농민 조합원들을 위해 나눔경영과 조합원 실익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농협 전남지역본부 지난 8일 제18호 태풍 '차바' 피해가 난 화순군 고추 재배 농가에서 자원봉사를 했다.

<농협 전남본부 제공>

태풍 '차바' 피해 화순 비닐하우스 자원봉사

농협 전남지역본부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강남경)는 지난 8일 제18호 태풍 '차바'로 피해가 발생한 화순군 고추 재배 농가를 방문하여 긴급 인력지원을 했다.

이번 인력지원은 태풍으로 큰 피해가 발생한

관내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하게 지원된 것으로, 전남농협(중앙회, 은행, 도곡농협) 임직원 약 70여명이 투입되어 태풍으로 무너진 비닐하우스 철거 및 비닐 보수 작업 등을 실시했다.

농협은 이번 태풍으로 인한 피해 복구를 위해 피해 농가에 복구자금을 조합상호지원자금으로

우선 지원, 낙과 등 피해 농산물 판매, 태풍피해 복구자금 신규대출 지원, 기존 대출고객 특별 만기 연장 및 이자 최대 12개월 납입 유예, 농작물 재해보험금 신속 지급 등의 다양한 지원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인력지원을 통해 강남경 본부장은 "전남농협은 이번 태풍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농가의 피해 복구에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하며 태풍 및 폭우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비할 것을 다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정계두

<유진투자증권 광주북부지점장>

CGV광주용봉점 2층 상가매매

체육관련업종(에어로빅, 체육관, 당구장) 병원, 학원, 미용실, 골프 아카데미 등

- 전용 289㎡ (락볼링장 옆, 점포 2칸)
- 매 7억5천만원 (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5천만원

락볼링장 매매

CGV광주점 2층 최신시설 락볼링장 현성업종 직영하실분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5천만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5천만원

화순 도곡 무인텔 매매

최근 올 리모델링 객실28개 최상의 입지 및 현 성업중

- 매23억 (근저당 14억5천만원), 실투자 8억5천만원

문의 010-3647-4747
(상기 물건은 전속중개 물건으로서 급매조정이 가능합니다)

www.솔향기맑은터.com

NAVER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참숯구이 돼지갈비 전문점
www.솔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참숯가마

24시간 OPEN!!

맛의향연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빠는날 화, 목, 토, 일 불빠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0인승, 20인승 무료이용 멸균작업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염가공급 1톤 30만원 (양동,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참숯가마 고객님이 식당 이용시 10% 할인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돼지갈비 전문점
 -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20%할인
 - ▶ 주말 및 단체모임은 사전예약을 해주시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각종모임(상견례, 가족모임, 기업체모임)/컨퍼런스룸/참숯가마 찜질방/노래방 & 동전노래방